

War Room VII.

열등감, 모멸감, 수치심을 이기는 십자가 중심의 기도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

1. 믿음과 의심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확신'이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믿음의 반대 개념은 불신이다. 불신의 시작은 '의심'으로 시작된다. 의심은 미혹으로부터 오며, 미혹은 사탄으로부터 온다 (불신-의심-미혹-사탄). 사탄의 정체는 무엇인가? 거짓말이다. 거짓말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의심'의 시대이다. 솔직히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증거를 조작하는 시대이다.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키워드는 '의심'이다. 의심이 쌓이면 불신이 된다. 불신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불신이 되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파괴된 인간의 모습이다. 결국 사탄의 목표는 파괴이다. 우리 안에 의심과 불신을 통해 자신을 파괴하게 한다. 세상 시스템은 '경쟁'이다. 경쟁에서 진다는 것은 '가치'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에서 평가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인정'에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된다. (끝이 없는 목마름이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세상의 저울'에 자신의 가치가 정해진다. 세상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그 순간 '열등감, 모멸감, 수치심'에 사로잡힌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절대 사랑'에서 떠났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존재적 사랑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이것이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탕자의 존재는 결국 열등감, 모멸감, 수치심에 사로잡힌 파괴된 형상이다. 자신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해도 소용없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셔, 나와 하나님은 지금 너무 먼 거리야. 나에게 미래는 없어' 파괴된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는 방법은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이다. 조건없는 절대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십자가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면 열등감, 모멸감, 수치심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다.

2.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궁극적 표현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이다.

[요한복음 15:13-14]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가 나의 명하는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가장 크다.

(1)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죽으신 이유

[로마서 5:6-10] 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ㄱ) 연약할 때 (6절)

연약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를 성경은 연약하다 말한다.

ㄴ) 경건치 않은 자 (6절)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지 않은지를 알아야 한다 (ungodly). 하나님을 위한 어떤 훈련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 ㄷ) 죄인 (8절) -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 반역하는 자들이었다.
 ㄹ) 원수(10절) - 원수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위치에 있었다)

사람에게 있는 위의 4가지 상태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은 증거한다. 위의 4가지 상태로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라 말하고 있다.

(2) 사랑의 측량

바울은 4가지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측량하게 되었다 말한다. (8절)

(3) 의심의 돌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위의 4가지 상태를 꼭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죽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알게 된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분명히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예수님의 희생적 죽으심을 통해서 알기 원하신다.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 열등감, 모멸감, 수치심으로 자신을 파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신다. 십자가만이 어두움의 터널을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알게 하신다. 우리는 그때 십자가를 만날 수 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3.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와 존귀함을 알려준다.

[로마서 8:35-39]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36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낮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에 기록된 신앙 여정의 정점의 말씀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3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십자가 사랑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한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와 존귀함을 알려준다. 현대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존귀함을 모른다는 것이다. 열등감,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가치있게 여기지 않는 시대이다. (자본주의, 육적 세계관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악마적 세계관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아야 한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와 존귀함을 알게 한다.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건을 살 때 알 수 있다. 얼마를 지불했는지를 보고 가치를 알 수 있다. 사람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값으로 지불하셨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십자가를 알면 알 수 있다.

* 교회의 가치

[사도행전 20:28]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한다. 감독자로 선 장로들에게 중요한 것을 알게 한다. 하나님이 교회를 무엇으로 사셨는가?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의 피가 값으로 지불된 곳이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자. 십자가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열등감과 같은 자기 파괴로부터 나올 수 있다 (교만도 자기 파괴이다).

십자가를 중심에 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아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 조이풀은 바로 십자가 복음의 가치 위에서 나아가야 한다. 혼돈의 때, 절망의 때, 십자가를 높이 세워 나아가야 한다. 그 절대적 가치 앞에 모든 상대적, 사탄적 가치는 무너진다. 할렐루야.